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51호 【루계 제25294호】 주체105(2016)년 5월 30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서고있는 보건산소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서고있는 보건산소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만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고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시기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건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현대적인 보건산소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치료를 받는 모든 병원들에서 위생안전성이 확고히 담보되는 질좋은 산소를 리용하도록 하기 위해 평양시교외의 명당자리에 공장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맡겨주신 영예로운 전투과업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지난 4월초 착공의 첫삽을 박은 건설자들과 일군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줄기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하부망건설을 질적으로 끝내고 지금은 모든 건축물들에 대한 골조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건산소공장건설을 위해 당에서 직접 파견한 건설자들이 제정된 기일보다 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해 날마다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결과 벌써 공장의 제모가 안겨온다고,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건산소공장배치계획안과 설계안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장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부문에서 리용하는 의료용산소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산소와는 달리 높은 위생안전성을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질좋은 의료용산소를 짱짱 생산하여 병원들에 보내주자면 보건산소공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건설에서 중요한것은 의료용산소를 전문적으로 생산공급하는 공장으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현대적인 설비들과 기술공정들을 완벽하게 갖추어놓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산소분리기장, 액체산소충진장, 기체산소충진장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하고 공장관리운영에 필요한 통합조종체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구축하며 여러가지 목적에 리용되는 각이한 용적을 가진 의료용산소병들도 그쯘히 갖추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보건산소공장의 모든 건축물들을 주변의 자연풍치와 어울리면서도 위생문화적으로 산뜻하게 일떠세울뿐만아니라 평양시안의 병원들이 의료용산소를 받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산소공급소도 잘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의 모든 병원들에도 의료용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자면 지금 건설하고있는 보건산소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의료용산소생산기지를 나라의 여러 지역들에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건산소공장건설은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당에서는 최근년간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잘하기 위한 온갖 조치를 다 취해나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건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해나갈수 있으며 우리의 보건을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 세계적수준의 보건으로 되게 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의료상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자면 보건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도 사회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에 진입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이 보건산소공장건설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공화국창건기념일인 9월 9일까지 공장을 훌륭히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더욱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 소백수남자롱구팀과 중국올림픽남자롱구팀간의 친선경기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 소백수남자롱구팀과 중국올림픽남자롱구팀간의 친선경기를 관람하시였다.

최룡해동지, 오수용동지, 리일환동지, 김여정동지, 김성남동지, 조용원동지, 리종무동지와 평양시안의 체육인들, 청년학생들, 수도시민들이 경기를 함께 관람하였다.

친선경기에서는 우리 나라 소백수남자롱구팀이 중국올림픽남자롱구팀을 82:73으로 이겼다.

앞서 진행된 두차례의 친선경기에서도 우리 나라 소백수남자롱구팀이 중국올림픽남자롱구팀을 81:70, 65:56으로 이겼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과 중국 두 나라 체육인들이 두터운 친선의 감정을 안고 멋들어진 경기동작들로 흥미한 경기를 펼쳐보인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관람자들도 높은 기술과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보여준 두 나라 체육인들에게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4일과 25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있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소금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고 하시면서 지하초염수로 생산한 소금이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식료품생산, 화장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생산에서 리용가치가 매우 높은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서해안일대에는 경제적가치가 큰 지하초염수자원이 풍부하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가 계속 앞장에서 소금산, 백금산을 높이 쌓아가는것과 함께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귀성제염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의 경제적효과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소금생산의 집약화를 실현할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각지 제염소들에서 이 방법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가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나라의 소금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고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을 소금공업력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으로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소금생산은 식량생산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능히 자급자족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소금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해 말씀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인민망, 국제방송망도 이 소식을 전하였다.

따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올렸다.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본사기자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로씨야 하바롭스크변강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건설경험연구협회에서는 집회가, 나이제리아 아키트-롱라고려센터에서는 도서전시회가, 나이제리아 아너운소아파병원과 아부리메장수고려합영병원에서는 영화감상회가 19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도서전시회장에는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백승만을 떨치고있는 주체조선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출판물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당창건기념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로씨야 하바롭스크변강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건설경험연구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다.

조선에서 사회주의위업이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령도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기때문이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이번 당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것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로씨야 하바롭스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의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정치군사강국인 조선은 가까운 앞날에 경제강국, 문명국으로 될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총과 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위대한 사상을 틀어쥐고 강력한 군력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강성국가를 건설해나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아너운소아파병원 원장을 비롯한 나이제리아의 각계 인사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김정은각하께 최대의 영광과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김정은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그이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이다,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한다고 언급하였다.

로씨야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10일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에서는 좌담회가, 싼크뜨-페쩨르부르그에서는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전로 김일성주의연구보급협회, 로씨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김정숙명칭녀성동맹, 주체사상연구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아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제1비서대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인민과 조선의 친근한 벗들에게 있어서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하신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으로 하여 조선의 미래는 더욱 휘황찬란하다.

조선인민이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선땅우에 반드시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이번 당대회를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당의 불패의 위력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만천하에 시위하였다.

김정은동지를 위원장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은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인류자주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조선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충정의 20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하자

백두산혁명강군의 단숨에의 기상으로 만리마속도를 창조

려명거리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이 여러동의 살림집골조공사 련이어 완성

충정의 200일전투가 선포된 격동적인 시기에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승리의 첫 포성이 높이 울려퍼지였다.

매일 평균 70여세대의 살림집골조가 형성되여 창전거리건설때보다 2.3배의 공사속도가 기록되고있는 이곳 대건설전투장에서 지난 28일과 29일 여러동의 고층 및 다층살림집골조공사가 련이어 결속되였다. 조선인민군 리영하소속부대와 박경옥소속부대, 오병철소속부대와 조선인민내무군 오영수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골조공사를 완성하고 15층건물들과 12층, 7층살림집건물우에서 련속적으로 터친 만세의 환호성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의 하늘가로 우렁차게 메아리쳐갔다.

초고층살림집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각 부대의 장병들도 련이어 10층계선을 돌파하는 속에 제일 앞선 모란55-1-가, 나호동의 살림집골조는 지금 19층계선을 넘어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양시건설은 단순히 살림집이나 짓고 거리를 형성하는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라 김일성조국의 존엄, 사회주의 조선의 권위와 관련되는 중요한 정치적문제입니다.》

려명거리건설은 젊음으로 약동하는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과 날로 변모되는 문명한 모습을 만방에 과시하기 위한 거창하고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공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은 려명거리를 당에서 정한 기간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일떠세울 충정의 마음안고 날마다 눈부신 건설성과를 기록하고있다.

조선인민군 리영하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지난 29일 2시까지 15층살림집골조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6층분에 해당한 발대목과 휘틀자재를 마련해놓고 일면, 주면로 부대, 구분대별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골조공사기간 부대적으로 10여대의 수직천양기와 1 000여㎥에 달하는 목재가 확보되였다. 부대장병들은 벽체를 타고 오를수 있는 개소마다에 수직천양기를 빠짐없이 배치하고 혼합물운반속도를 높여 15층살림집골조를 불과 20여일만에 보란듯이 일떠세웠다.

조선인민군 박경옥소속부대에서도 지난 28일까지 대성 56-111호동살림집골조공사를 끝내고 건물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였다. 공사기간 정성록, 김철민동무를 비롯한 부대지휘관들의 빈틈없는 작전에 따라 여러층분에 해당한 철근과 세멘트, 골재와 휘틀자재가 시공에 확고히 앞세워 보장되였다. 시공지휘를 맡은 김중남, 림동수동무들은 혼합물압송기에 의한 벽체와 층막의 동시형성을 비롯한 대담한 공사방법을 도입하여 지난 창전거리건설때보다 한개 층의 시공속도를 2.7배로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골조공사의 나날에 전격전, 림체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져 불과 20여시간동안에 한층씩 솟아오르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조선인민군 오병철소속부대와 조선인민내무군 오영수소속부대 장병들도 불같은 공격전을 벌려 맡은 살림집골조우에 련이어 승리의 기발을 휘날렸다.

오병철소속부대 현장지휘관들인 리광철, 최룡동무들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벌리고 자재보장사업도 짜고들어 모든 공정이 련속흐름식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기초공사로부터 어려운 골조공사마감에 이르기까지 경사발판에 의한 철근과 혼합물운반방법으로 수천㎥에 달하는 골조콩크리트치기를 계획보다 10여일이나 앞당겨 끝내는 위훈을 아로새기였다.

오영수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도 매일매일의 전투실적을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 보고드린다는 충정의 마음안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지력자강으로 뚫고나가며 살림집골조공사 전기간 비상히 높은 속도를 창조하였다.

온 건설장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의 불길이 갈수록 고조되는 속에 공사규모가 대단히 큰 초고층살림집건설장에서도 백두산혁명강군의 단숨에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조선인민군 전용범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을 발휘하여 골조공사와 미장성과를 동시에 확대함으로써 단기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자랑을 떨치였다.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와 홍정득소속부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도 공사실적이 높은 단위들로 자랑떨치고있다.

당중앙의 제일전우들인 영웅무쌍한 인민군장병들이 날에날마다 이룩하고있는 기적과 위훈창조의 새 소식은 지금 온 건설장에 혁명적군인정신이 펄펄 나래치게 하고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과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시공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인민군대의 투쟁본때, 투쟁기풍을 본받아 맡겨진 건설대상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려명거리건설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뚜렷이 과시할 필승의 신심과 확신에 넘쳐 골조공사완공의 첫 포성을 높이 울린 여러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모든 시공단위 지휘관, 전투원들은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기어이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명세를 안고 계속전진, 계속혁신, 련속공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조선인민군 박경옥소속부대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전형단위의 투쟁본때를 남김없이 과시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우리 당이 충정의 70일전투의 전형단위로 내세워준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에서 능률적인 채탄방법을 받아들이고 갱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적극 실현하며 선탄공정을 완비하여 질좋은 석탄을 소비단위들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8일현재 련합기업소에서는 5월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련합기업소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는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이 지난 기간 능률적인 채탄방법과 관성식적재운반설비, 사슬식콘베아와 같은 막장설비들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면서 석탄운반의 다양화를 실현한데 그 비결의 하나가 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 따라 현존석탄생산수준에서 해마다 수십만씩 계단식으로 생산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빈틈없는 작전을 짜고들고있다.

전망이 좋은 새 탄광들을 개발하며 심부채탄구역에로 채탄장들을 전개하기 위한 대담한 작전이 펼쳐지고있다.

탄광들에서 온을 내고있는 수평분층채탄법과 관성식적재운반설비, 사슬식콘베아를 모든 채탄장들에 빠짐없이 도입하여 채탄공 1인당 생산성을 보다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고 석탄운반의 다양화, 대형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작전에 따라 2.8직동청년탄광에서는 공기복합식선탄기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령대탄광에서는 새로운 선탄설비를 도입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2.8직동청년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철사판철의 정신력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특히 11갱, 청년갱, 1갱, 9갱 일군들과 탄부들이 온 탄전이 들썩하게 석탄생산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천성청년탄광에서는 11갱, 1갱, 3갱, 2갱 탄부들이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 다른 갱들에 비해 뚜렷한 계선을 그으며 앞서나가고있다.

령대탄광 3갱, 6갱에서는 23일까지 월 석탄생산계획을 106%, 101%로 넘쳐 수행하였고 7갱, 1갱, 5갱이 련합기업소적인 석탄생산경쟁에서 앞장서고있다.

련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은 자기들을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석탄공업부문의 전형단위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높은 석탄생산실적으로 보답할 불타는 결의를 안고 석탄생산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하고있다.

본사기자 강명헌

650여개의 체육시설들을 건설 및 개건보수

전국각지에서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전국각지에서 지난해와 올해 멋말사이에 650여개의 체육시설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보수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부문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체육시설망으로 뒤덮이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와 각 도, 시, 군들에서 해당 지역의 체육관, 경기장을 비롯하여 건설중에 있거나 개건보수하고있는 체육시설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평양시에서만도 체육관, 롱구장, 탁구장, 정구장, 로라스케트장을 비롯한 체육시설들을 무려 370여개나 새로 꾸리고 100여개를 개건보수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함경북도에서는 100여개의 체육시설들을 개건보수하였으며 황해남도에서도 수영관을 비롯한 여러개의 체육시설건설을 완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듯 온 나라 각지에서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꽃피우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결과 전국적으로 체육관, 경기장, 훈련관, 체육공원을 비롯한 체육시설 390여개를 새로 건설하고 260여개를 개건보수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라는것을 심장으로 새긴 각지 일군들은 체육시설들의 건설 및 개건보수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체육단, 태권도선수단, 청소년체육학교 등에 여러가지 측정기재들을 일식으로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도 완강하게 내밀었다. 하여 평양시, 황해남도, 자강도, 라선시, 철도성 등에 있는 체육교수훈련단위들에서 측정기재를 원만히 갖추어놓게 되였다.

체육부문의 후방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선수들에게 여러가지 음료와 영양식품들을 넉넉히 공급함에 대한 당정책을 철사판철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져 여러 체육대학들과 체육단, 태권도선수단, 청소년체육학교 등에 후방기지와 문화후생시설들이 훌륭하게 꾸려지게 되였다.

평양시와 자강도, 남포시에서 책임일군들이 직접 먹이보장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줌으로써 축산기지를 활성화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황해남도에서는 30여정보의 부업지를 새로 조성해주고 함경북도를 비롯한 여러 도들에서 양어장, 온실, 버섯재배장을 새로 꾸리는 한편 문화후생시설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전국각지에서 체육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그튼튼하게 갖추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체육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는 또 하나의 도약대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지혁철

전기설비와 애자생산에서 혁신

경성애자공장에서

경성애자공장의 로동계급이 전기설비와 각종 애자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만도 공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7배의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수백대의 전기설비와 수십만개의 애자를 생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70일전투기간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킨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당, 행정, 기술일군들이 직장, 작업반들을 맡고 내려가 생산자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 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곳곳에 당 제7차대회과업관철을 위한 전투적인 구호와 표어들이 게시되고 전투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 전기설비와 애자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전기설비부분품과 부속품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고압기구청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70일전투기간 한달은 실히 걸려야 할 전기설비조립을 한주일동안에 해제낀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설비조립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철연물직장과 주조직장의 로동자들도 맡겨진 생산과제수행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며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각종 애자생산을 맡은 1, 2애자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매일 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특파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시와 농촌, 일터와 마을들을 알뜰하게 꾸리며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고 대기와 강하천,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경관문도시 신의주시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훌륭하게 변모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안북도를 찾으실 때마다 신의주시를 국경도시답게 잘 꾸리고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도에서는 신의주시 본부지구, 청송지구와 락원지구하수망, 남신의주운하준첩공사를 힘있게 내밀면서 도시미화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국경도시의 면모를 보다 훌륭하게

평안북도에서

신의주시를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한 현장지휘부가 조직되고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별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공사에 필요한 150여㎥의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와 많은 량의 연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것과 함께 외장재생산기지들을 꾸려놓고 17t에 달하는 유기질외장재와 300t의 무기질외장재를 생산보장하도록 하였다.

여러 지구에서 하수도망정리공사가 전례없는 규모에서 벌어졌다.

도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력량을 집중하여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8만 7천㎥에 달하는 남신의주운하바닥을 파내고 본부지구와 청송지구의 하수도망들에서 수만㎥의 오물을 깨끗이 퍼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하수도망을 따라 1 400여개의 콩크리트뚜껑을 만들어 씌우고 본부지구에는 250여개의 경계석을 만들어 세우게 하였다.

다층살림집외형들을 개조하고 외장재바르기를 적극 추진하여 거리와 마을들을 현대적인 미감이 나게 일신시키도록 하였다. 도로연선의 살림집외형들을 개조하고 8만 2천여㎡의 미장을 해제낀 다음 유기질외장재바르기를 진행하여 도시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켰다.

도에서는 다층살림집들의 지붕개건과 창문들을 수지창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1만 8천여㎥의 공공건물의 외형개조와 외장재바르기를 적극 추진시켰다. 신의주시주택보수사업소, 남신의주건물보수사업소를 비롯한 5개의 단위들에서 맡은 공사대상들에 대한 외부미장과 외장재바르기가 지금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신의주시의 도로망개건보수공사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와 현장지휘부일군들은 3천여㎥의 벤자갈과 5천여㎥의 모래, 석탄을 보장해주면서 도로들에 대한 개건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하여 류상도로콩크리트포장과 신원거리와 성남거리를 비롯한 3개 로선에 대한 피치포장공사가 적극 추진되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물도랑정리와 도로횡단수통, 도로연석들에 대한 정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도록 하였다.

백운공원과 아동공원을 비롯한 신의주시의 모든 공원들이 더욱 일신되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원림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켜 2만 1천여그루의 가로수와 공원수십기를 진행하고 수만㎡의 면적에 새 품종의 잔디를 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급기관 일군들과 주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국경관문도시 신의주시의 도시경영사업에서는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평남관개관리소창립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안주 5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평남관개관리소창립 60돐 기념보고회가 29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곽범기동지와 박태성 평안남도당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관리소일군들, 종업원들, 안주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평남관개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곽범기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창립에순돐을 맞는 평남관개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다.

평남관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뜻깊은 곳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국토건설구상과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에 의하여 일떠선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이라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우리 농민들이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넘원해오던 골에 대한 숙망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남관개를 건설할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수십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여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다 풀어주시고 공사를 최단기간내에 끝내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지묵한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20여차례나 평남관개관리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물관리를 잘하며 관개시설들과 구조물들을 보호관리하고 보수정비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명시하시였으며 관개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물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념원을 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은정을 가슴깊이 새기고 일을 잘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고 하면서 축하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당중앙은 여러차례에 걸쳐 평남관개관리소의 실태를 료해하고 기업소에 깃들어있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주었으며 수령님들께서 완공된 평남관개의 수백리 물길을 돌아보신 잊지 못할 주체45(1956)년 5월 30일을 기업소의 창립일로 기념하도록 하였다.

평남관개관리소는 창립후 지난 60년동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우리 나라 관개의 맏아들로서 자랑찬 력사를 수놓으며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평남관개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지배인 량명철의 보고에 이어 기사장 리광철, 로동자들인 정영석, 김성일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관개관리소가 지난 60년간 자랑찬 발전의 길을 걸어온데 대하여 언급하고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 제7차대회결정과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물확보 및 공급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물관리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평남관개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농업발전과 경제강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모내기전투에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서 모내기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황해북도에서

황해북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모내기를 적기에 와닥닥 끝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와 시,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이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모내기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모내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은 모내기가 힘있게 벌어지는데 맞게 들끓는 포전들에 나가 기술지도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도의 농업근로자들이 기세충천하여 모내기를 다그치고있다.

사리원시 협동농장들에서는 모내는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전투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모내기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있다.

특히 미곡협동농장에서는 많은 면적에서 우량품종의 벼모내기를 진행하는데 맞게 모내는기계를 개조하여 모내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써레치기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 모내는기계운전공들과 모공급수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모가 뜨거나 빈포기가 생기지 않게 하고있다.

곡산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 열의밑에 매일 모내기계획을 12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이 깃들어있는 평양, 룡리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이 모내기전투의 앞장에 서고있다.

은파군에서는 논면적이 많은 벌지대에 력량을 집중하여 모내기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물보장대책을 따라세우고 모내기일정계획이 드티는 일이 없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특히 강안협동농장에서는 로력조직을 빈틈없이 하고 써레치기를 확고히 앞세우면서 모내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밀고있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서흥군 벌안협동농장과 황주군 룡천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의 령도업적단위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모내기전투실적을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모내기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영농공정의 하나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도의 모든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정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에 떨쳐나선 지원자들도 모내기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모내기성과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모내기전투장들에 달려나가 올해농사를 함께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내기전투를 힘껏 돕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협동벌에 달려나간 지원자들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당면한 모내기를 최적기에 와닥닥 끝내여 올해 높이 세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열의밑에 그날계획을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며 모내기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안변군의 책임일군들은 논면적이 많은 협동농장들에 필요한 로력을 제때에 내보내여 모내기시작부터 매일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고성군의 지원자들은 모내기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며 모내기의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천내군에서는 매일 많은 지원자들이 협동벌들에 나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모내기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질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창도군인민위원회에서는 한명의 로력이라도 더 많이 농촌에 내보내여 모내기를 적기에 다그쳐 끝내도록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여 모내기실적을 계속 높일수 있게 하고있다.

판교군의 일군들도 모내기가 시작되기 전에 협동농장들의 논갈이정형과 모가 자란 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많은 지원자들을 농촌에 보내주어 모내기전투를 힘껏 돕도록 하고있다.

도의 농업근로자들과 농촌지원자들의 드높은 열의는 그대로 모내기성과로 이어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70일전투철야진군의 기세로 오늘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빛내이자

우리에게는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이 있다

100kW풍력발전기개발에 참가한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합니다.》

당대회과업관철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다. 이 력사적인 사명을 위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충정의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철석의 맹세를 굳게 다지고있다.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각오와 열의도 비상히 높다. 그들이 당대회과업관철을 위하여 얼마나 방대하고 높은 200일전투결의목표를 세웠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놀란다. 연구소를 찾았던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우리에게 연구소소장 리명선동무는 책상에 놓인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을 내밀었다.

《이 힘이면 못할것도 무서울것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 자연에네르기개발력사에서 전환적계기로 되는 100kW풍력발전기개발에 참가하여 위대한 어머니당 제7차대회에 충정의 선물을 삼가 드린 연구소일군들과 과학자들의 보람찬 투쟁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진 기록장.

우리는 그것을 한장한장 먼저 나갔다.

《2월 23일

100kW풍력발전기제작을 맡은 풍력에네르기종합연구실의 전체 전투원들이 첫날 전투에 진입…》

이날 풍력타빈연구실에서는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전까지 새 풍력발전기날개를 제작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론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해말 당 제7차대회전까지 100kW풍력발전기의 설계는 물론 제작까지도 국가과학원의 힘으로 기어이 끝낼 목표가 제시되였을 때 제일 우려한것은 지금껏 만들어본 적이 없는 날개의 제작이였다. 무해전에 10kW풍력발전기를 만들었던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100kW풍력발전기날개를 불과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는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당이 부른 충정의 70일전투는 이들의 심장에 거세찬 폭풍의 불을 지폈다.

충정의 70일전투승리를 우리의 기적으로 담보하자!

실장 김유성동무와 연구사들은 이렇게 마음다지며 서로서로 손을 굳게 잡았다.

풍력발전연구실 실장 정인료동무와 지치남동무를 비롯한 연구사들은 영구자석식발전기제작준비가 한창인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충정의 70일전투를 맞이하였다. 준비작업을 일정보다 앞세워나가는 기쁨을 안고 오래간만에 숙소에 들어왔던 그들은 충정의 70일전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자리를 차고 일어나 작업현장으로 달려나갔다.

《새 풍력발전기의 심장부는 절대로 적정하지 마십시오.》

정인료실장이 때수심리학에서 전화로 이렇게 쉐칠 때 눈금이 확 달아오르더라는 초급당일군의 추억깊은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또다시 기록장을 번져나갔다.

《3월 13일

100kW풍력발전기의 조종체계프로그람부분을 맡은 기술공정연구실의 전체 전투원들이 프로그람작성에서 폭발적인 성과 이룩!》

이것은 연구소일군들은 물론 프로그람작성을 책임진 실장 함성일동무의 예상까지도 뒤집어엎은 기적적인 성과였다.

림태학, 김삼혁, 정광혁, 현동철, 박광학동무를 비롯하여 프로그람작성조에 망라된 연구사들은 거의나 과학연구사업의 첫자욱을 내짚은 새 세대 과학자들이였다. 그리고 당이 호소한 충정의 전투에 처음 참가하는 연구사들이 태반이였다. 이 력량으로 100kW풍력발전기조종에서 중핵적인 역할을 노는 프로그람작성과제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겠는가.

그러나 젊은 연구사들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기발하고 새로운 안들이 쏟아져나왔다. 깊은 밤, 이른새벽 연구실을 밝힌것은 조명불빛이 아니라 젊은 연구사들의 사색과 함구로 번쩍이는 눈빛이고 그와 함께 꺼질줄 모르는 콤퓨터의 밝은 빛이라는 말은 충정의 70일전투의 나날에 태여났다.

조종체계프로그람을 완성한 그날 청년과학자들은 《충정의 70일전투 만세!》를 높이 불렀다. 그것은 과학자의 첫걸음을 보람있게 떼도록 하여준 위대한 당에 드리는 젊은 과학자들의 감사의 인사였다.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에서 우리는 허송길이라는 연구사의 이름을 여러번 보게 되였다. 그는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받아안은 그날로 한 기계련합기업소로 떠나갔으며 근 한달동안 그곳 로동계급과 전투를 벌려 대형주물품인 선회대치차를 성과적으로 완성해가지고 돌아온 충정의 70일전투의 또 한명의 모범전투원이였다.

그는 우리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붉은색표지를 한 작은 수첩을 자주 펼쳐보군 했다. 우리도 함께 보았다.

《…

3월 20일 선회대치차 완성

3월 21일 기계련합기업소 출발》

짤막짤막한 글발들이였지만 거기에는 그가 지난 70일동안에 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적혀져있었다.

연구소로부터 수백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는 사람 하나 없지만 매일매일 당에 대한 깨끗한 충실성과 량심의 기록을 새긴 한 과학자의 수첩.

표지장정과 문구는 요란하지 않아도 마음도 슬결도 오직 당의 뜻에 잇고 사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세계를 전하는 또 하나의 빛나는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이였다.

자연에네르기연구소의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의 매 기록들이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전하고있었다.

거기에는 100kW풍력발전기개발을 위해 수많은 후방물자를 안고 전투현장으로 달려가고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연구소의 전체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도 깃들어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떳떳이 맞이하려는 하나의 지향과 염망이 우리 나라 자연에네르기개발력사에서 하나의 계기점으로 되는 기적적인 성과를 안아왔다.

오늘 또다시 크나큰 로부와 신심에 넘쳐있는 자연에네르기연구소 일군들과 연구사들,

바로 그들과 같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이 부른 충정의 200일전투에 힘있게 떨쳐나설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는것이였다.

그들이 웨치는 우렁찬 함성이 우리의 귀전을 울리는것만 같았다.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을 충정의 200일전투기록장으로 빛나게 이어가리라!

본사기자

결사의 정신이 안아온 열매

전천착암기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지난 2월말 어느날이였다. 전천착암기공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진지한 협의회가 열리였다. 협의회에서는 년말까지 계획되여있던 전기식착암기제작을 70일전투기간에 끝내기 위한 문제가 론의되였다. 전기식착암기제작은 공기식착암기에 비하여 구조가 매우 치밀하고 복잡한것으로 하여 해결해야 할 생소한 기술적문제가 수없이 제기되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70일전투기간에 우리 식의 전기식착암기를 내놓아야 합니다. 공장에 맡겨진 착암기생산계획을 수행하면서 말입니다.》

지배인의 말이였다.

뒤이어 초급당일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자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방도가 나지는 법입니다.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우리 공장로동계급의 로력적선물이라는것을 잊지 맙시다.》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로력적선물!

초급당일군을 바라보는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눈빛이 번쩍이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기식착암기제작을 위한 제작집단이 무어지고 제작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가 구체적으로 토의되였다.

전투에 진입한 제작집단의 열의는 이만저만 아니였다. 그들이 내건 목표는 설계로부터 자그마한 부분품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단번에 성공시키는것이였다.

단번성공! 여기에 70일전투기간에 자랑찬 창조물을 내놓는가 마는가가 달려있었다.

설계도면우에 새겨가는 점 하나, 선 하나에도 피타는 정열을 쏟으며 전투를 이어간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받들려 부분품가공전투에 들어가던 날 밤이였다.

공업시험실을 돌아보던 초급당일군인 김영철동무는 콤퓨터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책임기사 조석형동무를 보게 되였다. 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여러날동안 설계완성을 위해 현장에서 밤을 지새며 심혈을 기울인 조석형동무였다.

《책임기사동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초급당일군을 돌아보는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시험용버팀대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SR전동기가 없이도 착암기성능시험을 얼마든지 자체로 선행시킬수 있습니다.》

김영철동무는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가정환경으로 고충을 겪던 그가 당의 은정속에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받아안은것은 수십년전이였다. 그때부터 일흔을 눈앞에 둔 오늘에 이르는 기간 년로보장도 마다하고 보람의 일념으로 착암기생산에 모든것을 쌍그피 바쳐온 로기술자였다.

그만이 아니였다. 장비실 실장 박운식, 야금실 실장 리성철, 작업반장 유승혁동무를 비롯한 온 제작집단이 어머니당대회에 자랑찬 창조물을 드릴 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웠다.

밤을 모르고 잠을 잊은것 같은 제작집단성원들의 모습, 충혈진 그들의 눈이며 부르튼 입술을 두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뜨거운것을 삼킨적은 얼마였던가.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이것이 전기식착암기제작을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완성해나간 제작집단의 구호였다. 조종장치제작으로부터 자그마한 절삭공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품들에는 그처럼 공장로동계급의 깨끗한 량심이 깃들어있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신 기계설비전시장에는 전천착암기공장 로동계급이 만든 전기식착암기도 전시되여있었다.

그들이 만든 전기식착암기에는 언제나 당과 숨결을 함께 하며 결사의 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워온 전천착암기공장 로동계급의 고결한 충정이 어려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신 현 규

그들이 새겨안은 철의 진리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얼마전 기계설비전시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못내 만족해하신 농기계들중에는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에서 만든 소형벼수확기도 있었다.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은 명칭그대로 뜨락또르들의 부속품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단위이다. 하지만 공장의 일군들과 공무동력직장의 로동계급은 기성관념을 타파하고 대담하게 우리 식의 소형벼수확기를 만들어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공무동력직장의 로동계급이 소형벼수확기를 만들던 나날은 자기 힘을 믿을 때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강력의 진리를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겨안은 잊지 못할 나날이였다.

소형벼수확기를 제작하기로 결심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있는것보다 없는것이 더 많았다. 하나하나의 소재도 귀했고 농기계를 만들어본 경험도 없었다.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을 창조창출해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에 새긴 공무동력직장의 로동계급은 야심만만한 배짱을 안고 우리 식의 농기계를 만드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견본모방형이 아니라 개발창조형으로!

그들은 한가지 장치, 하나의 부분품을 놓고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만들기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소형벼수확기가 진땅에서도 일할수 있게 물바퀴장치가 창안도입된것도, 수확기의 운전대가 편리하게 개조된것도 다 그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이였다.

특히 좌석장치가 그러하였다.

《모든 농사일을 혈하게 하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이 아니겠소. 이왕이면 소형벼수확기에 좌석장치도 설치합시다.》

직장장 김학철동무의 말이였다.

그에 따르는 설계는 김학철동무가 맡아나섰다. 앉장치와 좌석장치의 중량균형을 보장하는 문제와 소형벼수확기의 회전반경을 최대한 줄이는 문제 등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였지만 그들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하나하나 완성해나갔다.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갔다. 전기가 부족할 때에는 자체로 발전발동기를 돌려 전기를 보장하였고 소재가 떨어지면 내부에비를 총동원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농기계를 만들지 않았다.

공장의 일군들도 로동자들도 현장에서 살다싶이하면서 모두가 어머니당대회에 드릴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마련한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최대의 지성을 기울였다. 자기들의 지혜와 땀이 스민 살붙이와도 같은 창조물이여서 소형벼수확기제작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평양으로 실어보내던 날 그들은 그날에서 사진도 찍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이 만든 소형벼수확기에 몸소 올라보시고 그처럼 기뻐하실줄 누가 알았으랴.

자기들이 정성껏 만든 소형벼수확기의 좌석에 앉으시여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공장의 일군들과 공무동력직장의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식이 제일이고 자강력이 제일이라는 철의 진리가 다시금 세차게 맥박쳤다.

본사기자 홍 성 철

신념은 기적을 낳는다

순천지게차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80hp뜨락또르를 보아주시면서 미남자처럼 잘 생겼다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철마이라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철마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80hp기관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만들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주인공들속에는 순천지게차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지난 3월 어느날 순천지게차공장의 한 일군의 방에서는 오래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70일전투목표로 내세운 80hp기관생산과 관련한 협의회가 진행되고있었던것이다. 지난 기간 60hp기관을 전문으로 생산해온 그들에게는 80hp기관을 만들어본 경험도 없었고 설비와 자재 등 부족한것도 한둘이 아니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협의회참가자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때 지배인 최혁철동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70일전투라는것을 명심합시다.》

이것은 최혁철동무가 협의회참가자들에게가 아니라 한개 단위를 책임진 자기의 당적량심에 대고 하는 호소였다.

그의 말은 협의회참가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치밀한 전투목표가 세워진데 이어 공격구령이 내려졌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세계적수준으로!

온 공장이 이런 대담한 목표를 안고 일떠섰다.

기사장 안혁준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련관단위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살다싶이하면서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로당원들은 물론 모두가 적진장에 나선 병사들을 방불케 했다.

기관본체가공은 제일 어려운 전투였다. 어느날 전투장에서는 초급당일군의 이런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모두 〈천진호〉뜨락또르를 만들어낸 공장에서 일하고있다는것을 잊지 맙시다.》

《천진호》뜨락또르,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천리마조선의 기상을 그려주는 부름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지어주신 《천진호》라는 이름에는 오직 전진만을 아는 우리 당의 계속혁명의 사상이 담겨져있는것이 아니라,

공장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자고 분발해나선 그들에게 있어서 넘지 못할 요새란 없었다.

태양절을 며칠 앞둔 어느날 공장에서는 새로 만든 80hp기관에 대한 시험이 있었다. 그날을 위해 바친 지혜와 정열, 헌신의 땀방울은 그 얼마였던가. 잠시후 그들의 입에서는 환성이 터져나왔다. 모두가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였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기지 못할 가장 깨끗하고 뜨거운 충정의 눈물이였다.

철마의 심장은 이렇게 세상에 태여났다. 순천지게차공장의 로동계급은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선물을 이렇게 마련하였다.

그것은 위대한 우리 당에 기쁨이 된다면 80hp기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것도 만들어내겠다는 굳은 신념이 안아온 기적이였다. 오늘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 제7차대회의 결정을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고있다. 충정의 70일전투에서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기세충천하여 전진하는 그들의 앞길에 새형의 80hp뜨락또르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미소가 어려오고 있다.

신 철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기어이 관철할 결의에 넘쳐있다. —강남요업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민감하게 포착하고 혁신적으로 받아들이자

우렁이유기농법으로 알곡증수의 돌파구를 연 엄주군 남암협동농장의 경험

엄주군 남암협동농장에서 유기농법을 장려할데 대한 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 정보당 10t의 알곡을 낼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당면하여 겨울난 종자우렁이들을 온실이 아니라 곳곳에 만들어놓은 벼모판규격의 못들에서 알낳이를 하게 하여 새끼우렁이들을 논에 놓아주기 위한 준비에 힘을 넣고있다.

이 우렁이들이 바로 지난해 10월말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건식잠재우기방법으로 겨울나이를 한 우렁이들이다.

이 사실을 놓고 농장일군들은 우리에게 앞선 우렁이유기농법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혁신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돌파구가 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렁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이면 많은 로력과 농약을 절약하면서도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담보가 있었다.

우선 전면적의 논에 우렁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일수 있게 종자를 확보하였다. 지난해의 경험이 있기때문이다. 농장에서는 그전까지 30%의 면적에 우렁이유기농법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70%의 논에 이 농법을 받아들여 그전보다 알곡을 정보당 평균 수백kg 더 생산하였다.

이 경험은 올해에 우렁이유기농법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과학적인 담보로 되였다. 온실과 땔감, 먹이가 없이도 많은 종자우렁이들이 안전하게 겨울나이를 할수 있는 건식잠재우기방법을 받아들이였기때문이다.

사실 지난 시기에는 가을걷이가 시작되면 온실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한 다음 온도보장대책을 세운데 이어 우렁이들을 넣고 배추, 부루 등을 먹이로 주면서 양식하였다. 결국 그 량이 적어 일부 포전들에만 우렁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이였다.

우렁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이는것은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농장일군들은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안고 우렁이유기농법도입에서 큰 공로를 세운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 박사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우렁이겨울나이방도를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물을 적게 들이면서 우렁이겨울나이를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탐구도입하였다. 그것이 바로 겨울철에 온실들과 먹이가 없이도 우렁이들이 겨울나이를 할수 있는 건식잠재우기방법이였다.

농장일군들은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서 이 방법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당의 뜻대로 전형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데서 찾았다.

제4작업반을 전형단위로 정한 일군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종자우렁이로전을 정한데 이어 포전에 도랑을 파고 물을 뺐다. 그리고 도랑에 모여든 우렁이들을 모두 림시로 만들어놓은 못으로 옮기였다. 먹이는 균처리를 한 소때설물을 주었다.

이 소식이 온 농장에 전해졌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머리를 저었다. 온실이 없이 어떻게 우렁이겨울나이를 할수 있는가 하는것이였다.

당정책의 운명이 자기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는것을 자각한 농장일군들은 다음날 작업반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을 제4작업반으로 불렀다. 현지에서 종자우렁이로전선정과 우렁이양식못의 규격, 종자우렁이선별방법, 용기에 모래를 깔면서 우렁이를 놓고 그것을 방안에 옮겨놓아 겨울잠을 재우는 방법 등 우렁이건식잠재우기방법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직접 보고 들은 그들은 저마다 이 방법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의해나섰다.

결과 지난해에 우렁이유기농법도입면적이 대폭 늘어났다.

다음은 전면적의 논에 유기농법을 받아들일수 있게 겨울난 종자우렁이영양관리문제를 해결한것이다.

건식잠재우기방법으로 겨울을 난 우렁이들은 봄부터 활동을 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 우렁이들의 영양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한해농사의 성과여부가 좌우된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지난해의 경험에 기초하여 겨울난 종자우렁이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는데 힘을 넣었다.

지난해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4월초에 먼저 우렁이양식못들을 만들면서 먹이준비를 따라세웠다. 그리고 중순에 우렁이들을 넣은데 이어 못들의 곳곳에 알쓸이를 할수 있게 꼬챙이들을 꽂아놓았다. 다음은 활창대를 대고 비닐박막을 씌워 온도를 보장하면서 균처리를 한 소때설물을 먹이로 주었다. 그때부터 겨울잠에서 깨여난 우렁이들은 먹이활동을 하면서 꼬챙이들에 알쓸이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혁신적인 우렁이영양관리방법이였다.

모내기가 끝난 포전들이 늘어나자 그들은 정보당 30~50kg씩의 우렁이들을 놓아주었다. 이때 우렁이들이 알쓸이를 한 꼬챙이들도 포전의 곳곳에 꽂아놓았다. 포전에 들어간 우렁이들은 풀을 뜯어먹고 배설물을 내보내는것은 물론 때로는 논바닥흙을 헤쳐놓아 버루리활성을 높여주었다.

결국 우렁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인 포전들은 쿨한대없이 말끔하였다. 수십일 되니 우렁이들이 정보당 수백kg으로 늘어났다.

가을의 결실은 우렁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일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현실로 증명해주었다. 화학비료를 치지 않고 김매기를 하지 않았지만 정보당 알곡이 평균 8t이상, 일부 포전들에서는 최고 13t이상 생산되였던것이다. 특히 포전들에 남아있던 우렁이들은 가을걷이후 그대로 지력을 높이는 질좋은 유기질비료로 되였다. 그리하여 농장적으로 수십t의 비료와 수천공수의 로력을 절약하면서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지난해농사경험을 통하여 올해 높이 세운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의 하나가 봄철에 우렁이영양관리를 잘하여 유기농법도입면적을 더욱 늘이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한 농장일군들은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한편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겨울을 난 우렁이들을 못마다 넣고 균처리를 한 소때설물을 주면서 영양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여 모내기한 포전들에 우렁이를 놓아주기 위한 준비를 끝내가고있다.

경험은 당의 뜻대로 일군들이 앞선 영농방법들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혁신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렁이유기농법을 더욱 발전시켜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창 길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증산군에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70일전투는 서해벌방 증산땅에도 전변을 가져왔다.

군소재지의 공공건물들과 다층살림집들이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되고 식료공장을 비롯한 지방산업공장들이 현대적으로 개건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비섯공장, 양어장이 훌륭히 꾸려져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버섯과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수원지가 새로 건설됨으로써 읍지구의 수백세대의 주민들에게 질좋은 먹는물을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게 되였으며 소석회생산공정이 새로 일떠서 지력을 높이고 알곡소출을 많이 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모체양묘장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려지고 하천정리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이 자랑찬 성과들은 충정의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5월의 대축전장을 뜻깊게 장식할데 대한 당의 호소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충정의 70일전투를 벌릴것을 호소한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받아안은 군책임일군들은 년중에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던 대상건설과 개건사업들을 70일전투기간에 끝내기로 하였다.

그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대상들이였다.

석다리앞바다에 건설하는 30정보규모의 양식장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군자체의 힘으로 하기에는 어렵이 크다고 할만큼 많은 로력과 자재, 자금이 드는 자연개조공사였다.

하지만 리영진동무를 비롯한 군의 책임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한다면 70일전투기간에 계획한 일들을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고 보았다.

군에서는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70일전투에로 흥궐기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온 군이 혁명열, 투쟁열, 경쟁열로 부글부글 끓게 하였다.

군에서는 70일전투의 돌파구를 양어장개건공사를 와닥닥 끝내는것으로부터 열어제낄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하였다.

양어장개건공사는 수만m³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백m의 제방을 쌓으며 많은 면적에 장석을 입혀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였다.

군당책임일군은 자재와 물전기재보장을 앞세우고 온 군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군내명들격대원들이 양어장개건공사를 통채로 맡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서 떨쳐가는 조선녀성들의 불굴의 기개가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그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그리하여 몇달이 걸려도 할수 없다던 양어장개건공사를 녀성들의 힘으로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끝내는 눈부신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 성과에 토대하여 군에서는 소석회생산공정을 꾸리고 버섯공장을 개건하며 양식장건설을 다그치는 사업을 립체적으로 내밀어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군에서는 식료공장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7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도록 적극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현대화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종이공장, 토기공장을 비롯한 군안의 전반적인 공장들에서 계획된 중요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승리의 5월을 향한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에 빛나는 위훈을 새기며 질풍같이 달려온 증산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자랑찬 투쟁성과는 래일의 더 큰 승리를 담보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서 남 일

삼천리강토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 투쟁에서 조선녀성의 기개를 힘있게 떨쳐나가자

김정순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담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온 민족의 통일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신것은 자주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를 열어놓은 커다란 민족사적사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략에는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70여년의 민족분렬사에 종지부를 찍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철석의 의지가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천명하신 조국통일과업을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는 길을 뚜렷이 밝힌 강령적지침, 불멸의 고무적기치로 받아안고 이를 전체 녀맹원들과 녀성들의 마음을 담아 열렬히 지지찬동한다.

돌이켜보면 우리 녀성들은 당 제6차대회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남녘의 녀성들과 함께 내외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왔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과 같은 전민족적인 통일운동단체들과 북과 남, 해외의 련대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우리 녀성들이 적극 참가하였으며 특히 6.15통일시대에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북남녀성통일대회, 녀성대표자회의를 비롯한 다채로운 통일회합들을 성대히 개최하고 련대활동들을 활발히 벌리면서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열기를 북돋아주고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그 나날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따르고 빛내이는 길에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이 있다는것을 절감하였다.

지금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전체 녀맹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고 평화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조선민족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절세위인의 애국의 뜻과 불멸의 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야 한다.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면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판하게 틀어쥐고나가는 한편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들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근본원칙과 실천방도들이 뚜렷이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당국은 《핵페기가 없는 평화공세는 무의미》 하다느니, 《진정성없는 위장공세》 라느니 뭐니 하고 우리의 진정어린 호소와 제의에 도전적으로 나오면서 《북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적제재와 압박을 계속할것》 이라는 망발을 줴치며 온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대결정책들을 지렁해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지금까지 남조선보수패당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동족에 대한 극도의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면서 새 세기에 마련된 민족공동의 소중한 열매들을 무참히 짓밟고 북남관계를 전례없는 파국에로 몰아넣었다.

오늘에 와서는 이것도 모자라 동족이 내미는 아량과 선의의 손길을 뿌리치며 어리석게 놀아대는 남조선당국의 처사야말로 자멸을 촉진하는 미련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북과 남의 녀성들은 뜻과 힘을 합쳐 통일의 한쪽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밀어나가면 6.15시대의 그 정신, 그 열정, 그 기세를 다시금 충폭발시켜 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분기하여야 할것이다.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전제이다.

누구보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해내외의 전체 녀성들은 겨레의 운명을 엄중히 위협하고 북남관계개선의 장애를 조성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전쟁연습소동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북과 남의 녀성들은 접촉과 래왕, 련대련합을 이룩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진정한 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남조선의 각계층 녀성들이 온 겨레의 통일의지와 념원이 뜨겁게 어려있는 조선로동당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실현하며 우리 민족끼리기치아래 더욱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는데 앞장서나가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조국통일운동의 한쪽수레바퀴를 담당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녀성들이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힘과 지혜를 합쳐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

우리 공화국의 전체 녀성들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5월 29일
평 양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총련조직들에서 경축행사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신것을 경축하는 행사들이 총련조직들에서 진행되였다.

총련 오사까부본부 경축행사가 24일 오사까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본부관하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부영욱 오사까부본부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으로 조국을 방문하는 나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얼마나 아끼고 내세워주고계시는가를 심장깊이 절감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축하단일행이 받아안은 사랑과 배려에 대해 피력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하늘땅 끝까지 충정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쳐가는 해로 빛나게 장식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날 총련 흑가이도본부가 본부회관에서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정성한 흑가이도본부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흑가이도본부관하 전체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동포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동포들속에 철저히 들어가 그들을 위해 멸사복무할데 대해 그는 언명하였다.

이에 앞서 21일과 22일 총련 효고현본부, 후꾸오까현본부, 아이찌현본부에서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행사들에서는 현본부 위원장들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커다란 행운이며 최상최대의 영광이라고 강조하였다.

재일동포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사업하는 영예와 긍지를 뜨겁게 새겨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이 기약된 희망찬 래일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그들은 정세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끄떡없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어머니 우리 조국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축행사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드리는 편지들이 랑독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한 일군이 보낸 감동깊은 편지

실화 새 세대

얼마전 우리는 라남한짱기계련합기업소 당위원회의 한 일군이 보낸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서 그는 충정의 70일전투기간 청진시 포항구역 수북2동에서 살고있는 안명희동무의 가족이 련합기업소의 생산현장에서 예술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린 사실에 대하여 전하고있었다.

편지는 읽을수록 감동깊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 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70일전투의 철야진군으로 들끓던 때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대상설비생산으로 긴장한 전투를 벌렸다. 년로보장자들과 가족들까지 련합기업소로 달려나와 로동자들의 일손을 도와나섰다.

그러던 지난 3월 어느날이였다. 누구들인지는 알수 없으나 어느 한 가족이 펼쳐보이는 예술선동이 전투현장을 들었다놓았다. 전문가들 못지 않게 손풍금을 타며 위훈창조에로 부르는 노래도 좋았지만 보랏찬 70일전투에서 모두가 위훈의 창조자가 될것을 바라는 로인부부의 격동적인 호소가 라남로동계급을 더욱 분발시키였다.

점심참이라 예술선동을 마치자 이들가족은 현장로동자들에게 푸짐한 식사까지 대접하였다.

이날 작업실적은 예상외로 껑충 뛰여올랐다. 로동자들의 반향도 컸다.

그후에도 이들의 예술선동은 계속되였다.

퍼 후에야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그들이 안명희동무의 가족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밤을 새워 예술선동을 준비하였다는 안명희동무와 그의 남편 림성일, 딸인 소학교학생 림소연, 동서 진수향, 작은시어머니 채봉숙동무의 마음속에 자기들도 70일전투의 참전자로 살려는 불같은 결심이 자리잡고있었다. 70일전투장을 빈손으로야 어떻게 찾아가겠는가고 하면서 집에서 기르던 100㎏이나 되는 돼지를 내놓았다는 시부모인 림봉수, 채정지로인에 대한 이야기가 감동적이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일군은 안명희동무의 가족에 대한 이런 사실을 전하며 편지마감에 이렇게 썼다.

《나이 일흔이 훨씬 넘은 로인들도, 가정부인들도, 어린 소녀들도 우리 로동계급과 슬결을 함께 하는 모습에서 저희들은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떨쳐나서는 우리 인민의 참모습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군은 안명희동무의 가족을 신문에 꼭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특파기자 리 은 남

라인숙은 온돌에 부드러이 스며드는 훈향을 안고 걸었다.

그의 손에는 크지 않은 꾸레미가 들려져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는 아들 김금일이 보내어온 보약들과 당과류이다.

꾸레미겉에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사동 5인민반 라인숙어머니앞》 이라고 큼직하게 주소가 써있지만 그것을 받을 주인공은 따로 있다. 그래서 라인숙은 지난 수십년간 하루가 멀다하게 걸은 길을 또다시 기쁨속에 걸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속에서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스승과 웃사람을 존경하며 동지를 사랑하고 가정과 집단의 화목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꽃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걸음을 처음 시작하던 20여년전에 라인숙은 30대 초엽의 젊은 녀인이였고 아들 금일은 유치원생이였다. 금일이가 어디에 가는가고 물었을 때 라인숙은 작은할아버지네 집에 간다고 선뜻 대답했다.

《작은할아버지?》

금일은 고개를 기웃거리였다. 인숙은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작은할아버지란 엄마의 삼촌이라고. 하지만 그자신조차도 그 삼촌을 오늘 처음 만나보게 되지 않던가.

정재창작은할아버지는 금일의 마음에 꼭 들었다. 화선에서 싸운 로병답게 쾌활하고 락천적인 성격, 실꾸리처럼 풀려나오는 전쟁시기의 무훈담들이 금일이의 동심을 사로잡았다. 라인숙이 갖가지 부식품과 보약들을 마련해가지고 전쟁로병삼촌의 집을 찾을 때마다 금일은 줄겨 따라나서군 했다.

그러던 어느날 금일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로 인숙이 다니는 직장에 나타났다. 그는 인숙을 만나자바람으로 《어머니, 정재창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아니나요?》 라고 묻는것이였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한순간 당황했던 인숙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금일이한테서 불부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학급동무가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니라구.》

얼마전에 금일이네 학교에서는 정재창전쟁로병과의 상봉모임이 있었다. 그때 금일이가 학급동무들에게 저 전쟁로병이 바로 우리 작은할아버지라고 자랑한 모양이였다.

실망한 아들을 보느라니 지금껏 못 잊는 사연을 말해줄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어릴적 일을 추억속에 더듬었다.

《네 증조할머니에게 둥그런 베개가 하나 있었단다. 잘 때마다 베고자는 수수한 베개였는데 증조할머닌 그걸 무척 소중히 여겼지. 어느날 난 그 베개밑에 무엇인가 있다는걸 알게 되였다.》

할머니가 베개밑에 간수한것, 자주 꺼내여 한참씩 들여다보다가는 다시 그 자리에 넣어두군 하는 그 보물이 과연 무엇일가 하는 생각에 몸이 단 인숙은 할머니가 잠든 참에 베개밑에 살며시 손을 넣었다.

가로세로 접은 종이장이 나왔다. 그것을 조심조심 펼쳐 거기에 적힌 글발을 읽어가면 인숙은 그만 가느다란 비명을 질렀다.

《그건 다름아닌 전쟁시기의 전사통지서였단다. 그때 할머니가 잠에서 깨였지. 방바닥에 떨어진 전사통지서에서 모든것을 짐작한 할머니가 말하더구나.

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없구나.》

인숙의 이야기를 귀담아들던 금일의 얼굴이 확 밝아졌다.

《어머니, 나 계속 할아버지로 따를래요. 좋지요?!》

인숙은 정찬 미소를 지었다.

변함없는 마음속에 많은 세월이 흘렀다. 라인숙은 어느덧 년로보장을 받았고 아들 금일은 대학생이 되였다.

정재창전쟁로병의 집에서는 전쟁로병의 안해인 서연식로인이 금일이가 보낸 꾸레미를 헤치는데 보약들과 당과류속에서 쪽지편지가 하나 나왔다.

《저의 작은할아버지의 짧은 시절의 발자취가 찍힌 룡남산언덕에서 한번도 보지 못한 그분의 모습을 그려보느라니 전화의 나날 이 언덕을 웃으며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용사들의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한치한치의 땅을 지켜 피끓는 가슴으로 화점을 막고 육탄으로 땅크를 맞받아나간 영용한 우리 할아버지세대가 아니였다면 내가 공부하는 이 해빛밝은 교정이 어떻게 마련되였겠는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저더러 너무 마음쓰지 말고 학업에 열중하라고 하셨는데 작은할아버지를 위하는것은 단순한 손자의 정이 아니라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지켜준 은인들에 대한 우리 새 세대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

라인숙의 눈앞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으로 떠나기에 앞서 작은할아버지가 섰던 룡남산의 언덕에서 자기가 걸어가야 할 새 세대의 길을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이 선히 보이는것만 같았다.

어제날 할아버지세대가 걸은 길, 조국을 지켜 피와 목숨을 바친 전쟁세대를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어머니와 함께 걷던 길…

어린시절부터 작은 발자취를 찍으며 심장에 새긴 그 길의 체험이 얼었더라면 룡남산의 교정길이 이렇듯 가슴뜨겁게 안겨들었겠는가고 절절히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귀전에 울리는듯싶었다.

라인숙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속삭였다.

(이 땅에 사는 누구든 영원히 잊어서는 안되는 전쟁로병들, 그 모습을 안고 살아야 한단다. 증조할머니가 한평생 간직했던 전사통지서, 로병들의 전쟁이야기를 대를 이어 잊지 않으던 조국에 필요한 참된 새 세대가 되는거란다!)

* *

라인숙과 그의 아들 김금일!

그들은 결코 전쟁을 잊고 사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 세대가 아니였다. 할머니의 베개머리에 고이 간직된 전사통지서와 같은 가렬처절한 전쟁의 목소리들을, 조국을 위해 꽃나이청춘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병사들의 위훈을 오늘도 심장속에 간직한 혁명의 참된 새 세대였다.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남편과 자식들을 그리며 잠 못 들던 그날의 세대들은 떠나갔어도 사랑하는 자식의 위훈을 잊지 않는 어머니의 진정으로 전쟁로병들을 나라의 보배로, 고결한 삶의 모범으로 금방석에 떠받들어주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혁명의 대는 꿋꿋이 이어지고있었다.

지난해 10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범속한 혈육의 정으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 한목숨 아낌없이 내대고 싸운 전쟁로병들앞에 지닌 새 세대의 고결한 의리로 지난 20여년간 변함없는 길을 걸은 라인숙의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본사기자 허 명 숙

은을 내는 다기능초지설비

회창군종이공장에서 만난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 과학자들

우리는 얼마전 회창군종이공장을 찾았다.

100%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에 의거하여 설비의 국산화가 실현된 종이생산공정에 대한 소식이 우리의 호기심을 끌었던것이다.

산물욕유의 풍경에 어울리는 《새옷》 으로 단장된 공장은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눈길을 끄는 휴식터로 하여 한결 산뜻해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공장들을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으로 꾸리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생산을 활성화하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생산현장에 들어서니 크지 않은 면적에 현대의 다기능초지설비가 놓여있었다.

현장에서 우리를 반겨맞은 군인민위원회일군인 권창만동무는 때마침 왔다고 하며 이제 곧 새 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하게 된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다기능초지설비를 설계제작한 주인공들을 소개해주었다.

알고보니 그들은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 과학자들이였다.

현장에 와있던 소장 박사 부교수 리영일동무는 우리에게 뜻깊은 올해에 군종이공장을 지방산업공장의 본보기로 꾸리려는 군책임일군들의 일욕심은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계획된 날자보다 두달이나 앞당겨 설비를 제작하고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과 함께 설치한데 이어 오늘은 이렇게 시운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얼마후 고르로운 동음이 울리며 다기능초지설비가 기운차게 돌아갔다. 이윽고 새 설비에서는 학습장용종이와 위생종이가 동시에 줄줄이 쏟아져나왔다. 가슴흐뭇한 광경이였다.

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이다.

그날 군인민위원회일군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하였다. 공장의 현대화를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종이공학연구소를 비롯하여 여러곳을 다녀오기도 하고 새 설비를 공장에 설치할 때에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과학자들과 슬결을 같이한 그였다. 이런 그였기에 지방에 흔한 파지를 원료로 하여 군내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여러가지 종이제품을 펑펑 생산하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기쁨의 눈물이 고여올랐다.

다기능초지설비의 도입으로 공장이 얻게 되는 경제적효과성은 여기에만 있지 않았다.

공장의 기술준비원 리별동무의 말에 의하면 지난 시기에 비해 종이 1톤 전력소비량이 줄어든것은 물론 종이생산에 많이 쓰이는 물소비량도 60%이상 줄이고 생산능력은 2배이상 장성하게 되였다고 한다.

또한 집약화된 한공정에서 다종종을 생산하는것으로 하여 설비리용률이 훨씬 높아지고 폐설을 재자원화할수 있게 되였다.

더우기 좋은것은 이미 있는 설비를 리용하여 능률적인 다기능초지설비를 만들수 있어 그 어느 단위에서나 받아들일수 있다는것이다.

공장에서 도입한 다기능초지설비와 함께 딸프이송롤프 역시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칼프의 류체력학적특성에 맞게 자체로 새로 개발한것이다.

회창군종이공장에 새롭게 꾸려진 종이생산공정을 통하여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것은 세계를 굽어보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남의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내려는 야심만만한 배심으로 무엇이나 제힘으로 척척 개발해내는 우리 과학자들의 자력자강의 정신력이다.

하기에 연구소에는 첨단수준의 특수종이를 만들수 있는 생산공정이 그쯘히 꾸려져있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로 회창땅에 어제는 회창군기초식품공장이 주민들이 자랑하는 공장으로 소문났다면 오늘은 회창군종이공장이 군에 덕을 주는 공장으로 되였으니 또 하나의 자랑이 늘어난셈이다.

종이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리며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산악같이 일떠서고있다.

본사기자 오 철 훈

모든 학교의 교육현대화 힘있게 추진

우 시 군 에 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적으로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전사회적으로 교육부문을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시군에서 교육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군안의 많은 학교의 교실들이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되고 그중 19개 학교는 군교원재교육강습소를 통하여 국가콤퓨터망과 련결되였다.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교육부문 일군들과 교원들의 교육행정사업과 교수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게 되였다.

또한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더욱 계발시켜 그들을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이 겸비된 유능한 인재들로 준비시킬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군당위원회일군들은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을 70일전투의 중점목표로 제기하고 이 사업을 군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갔다.

군안의 잠재력을 최대한 리용하여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군급기관 일군들과 후원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여러 계기들에 교육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사상과 정신을 일군들에게 깊이 체득시키였다.

우시고급중학교에 높은 급의 다기능화된 모범교실을 꾸려놓고 군급기관과 후원단체 일군들을 참관시켜 다기능화된 교실이 교수기능과 교양적기능, 전자열람기능, 교수활동관리기능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능을 갖춘 교실이라는것을 인식시켰다. 그리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준 정형을 수시로 총화하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지난 4월 새 학년도를 맞으며 군에서는 일군들과 후원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기종이 높은 휴대용콤퓨터 170여대, 다기능투시기 130여대, 투영기, 빛변환기, 1만여m의 빛섬유케블을 비롯한 15종에 500여점의 설비들을 학교들에 보내주어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할수 있는 물질적담보를 마련하게 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교원재교육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교원재교육강습소에 10여대의 휴대용콤퓨터, 투영기, 빛섬유케블을 보장해주어 군에 훌륭히 꾸려진 미래원과 국부망을 형성하고 국가콤퓨터망을 통하여 원격교육과 교원재교육강습을 할수 있는 물질적토대를 갖추어주었다.

지금 군에서는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쓸모있는 인재들로 억세게 키워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최 영 길

독자의 편지 내 나라가 제일입니다

두해전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인 배천군으로 돌아올 때 저는 부모가 없는것으로 하여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짧은것이였습니다. 지배인 최선철, 초급당위원장 채성준동지를 비롯한 배천군인민위원회 아래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저를 친혈육처럼 맞아주었습니다.

사업소일군들은 이제부터 한식솔처럼 지내자고 하면서 그 다음날로 저에게 새 양복과 작업복, 내의류들은 물론 신발과 장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생활필수품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김길영, 서광근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은 제가 앓을세라, 추워할세라 늘 관심을 돌리며 친혈육의 심정으로 저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었습니다.

제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에는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일이 바쁜 속에서도 친부모된 심정으로 결혼식을 보란듯이 차려주었고 많은 가정용품들도 마련해주었습니다. 저의 가정에서 아들이 태여났을 때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안해에게 귀한 보약재며 애기옷도 마련해주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떠나 저의 이렇듯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상상할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빛내여주시는 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배천군 읍 114인민반
윤 희 성

공장에서 — 생산에 참조적지혜를 합쳐간다. —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효능높은 고려약

본사기자 김 진 명 씀

민족단합의 화원을 꽃피운 숭고한 사랑

조국통일운동사에는 한평생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와 크나큰 로고가 뜨겁게 어려있다.

애국애족의 숭고한 사상과 뜨거운 동포애, 고매한 덕망으로 민족성원 한사람한사람을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장군님!

그이의 거룩하신 태양의 모습을 우러를때면 민족의 단합을 위해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심혈과 로고가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여기에 평양을 방문하였던 남조선의 한 기업가가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온 후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토로한 이런 말이 있다.

《내가 세상을 다니며 장군이란 장군은 다 만나보았어도 진짜 장군다운 장군은 김정일장군님이 처음이다. 김정일장군님은 장군중의 장군이시야.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뵈오니 이제는 통일이 다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세상 누구도 따를수 없는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시고 겨레모두에게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애국의 신념을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풍모와 숭고한 덕망은 그가 누구이든 이렇듯 끝없는 매혹과 격정을 터놓게 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타고나신 탁월한 위인이시였다. 그이의 심장속에는 조국과 민족밖에 없으시였다.

울서깊은 평양의 아름다운 보통강기슭에는 독특한 건축물이 자리잡고있다. 류경정주영체육관이다.

정주영으로 말하면 대기업가로서 한때는 남조선정계에 진출하여 《대통령》후보로까지 나섰던 사람이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지나온 과거나 사회계급적처지보다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하려는 그의 민족적량심을 더 소중히 여기시며 그가 고령의 몸으로 평양을 방문할 때마다 친히 만나주시였다. 그리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푸시여 그가 통일애국의 한길을 뜻뜻이 걸어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그의 숙소에까지 찾아오시여 동포애의 정을 부어주시고 그가 다리를 불편하게 쓰는것이 못내 가슴아프시여 걱정어린 안색으로 다정히 물어도 주신 사려깊은 사람, 나이많은분이라고 하시며 그를 가운데 세우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다심하신 은정은 사람들모두의 눈굽을 뜨겁게 적셔주었다. 그것은 정녕 출신과 경력, 신분과 재산, 주의주장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의 대단결로 민족공동의 번영과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무한대한 사랑의 세계,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력사적화폭이였다.

력사에는 덕망높은 위인들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처럼 사상과 리념, 계급과 계층우에 민족을 놓으시고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과 고결한 덕망으로 온 겨레를 단합시킨 그런 위인을 력사는 알지 못한다.

하기에 정주영은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는 순간부터 그이께 마음이 끌리고 매혹되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으며 그이를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 민족대단결의 구성으로 높이 칭송하며 참된 애국의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려라 굳게 결심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한번 믿음을 주신 사람은 통일애국의 대오에서 끝까지 손잡고나가는 변함없는 사랑이였고 애국의 길에 바쳐진 삶을 값높이 빛내여주는 영원한 사랑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주영선생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친히 조전도 보내주시고 화환과 함께 높은 급의 조의대표단까지 서울에 파견해주시였으며 보통강기슭에 일떠선 체육관을 그의 이름으로 부르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하여 그가 민족을 위한 길에서 영생하는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시였다. 그후에는 정주영의 일가에게 대를 두고 전해갈 믿음과 사랑을 거듭거듭 베풀어주시였다. 진할줄 모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 열화같은 동포애는 온 겨레와 세계를 커다란 격정과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생의 자욱을 남긴 사람들가운데는 남조선에서 외무부장관, 군단장까지 하던 최덕신선생과 군장성으로 있던 국제태권도련맹 전 총재 최홍희선생도 있다.

어찌 그들뿐이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익환목사의 미망인인 박용길녀사와 재미동포녀류기자 문명자, 일본에 사는 남조선가수 등 수많은 각계층 동포들을 만나주시여 따뜻한 동포애와 대해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애국의 열정을 부어주신 그 숭고한 풍모는 절세위인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세계를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주고있다.

지난날 곡절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조국과 민족앞에 죄를 지은 문선명선생이 인생말년에 불미스러운 과거와 절연하고 민족을 위한 길을 걸을수 있은것도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있었기때문이다. 그의 인생전환에 대하여 남조선출판물들은 《정생을 반공에 바쳐온 그가 보여준 행동은 말그대로 엄청난 충격이였다.》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사람은 돈과 재물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마음의 기둥이 없고 미래가 없이는 못산다고 하였다. 온 민족을 따뜻이 품어주는 숭고한 인간애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를 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은 그에게 있어서 굳건한 마음의 기둥이시였으며 희망이 넘치는 미래이시였다. 그러한 문선명이였기에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온 나라, 온 겨레가 비분에 잠겼을 때에는 비통한 마음을 누를길 없어 절단코 남조선당국의 방해를 물리치고 조의대표단을 주저없이 파견하였던것이다.

사람은 힘에 끌리우는것이 아니라 인덕에 끌리우며 권력에 매혹되는것이 아니라 인품에 매혹된다.

진정 위대한 어버이의 숭고한 사랑과 고매한 덕망에 매혹되여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김정일령도자님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는 천하를 얻고 천하를 움직이는 위대한 정치이다.》, 《겨레모두를 한품에 안아주시는 김정일장군님의 무한대한 도량과 포용력에 머리가 숙어진다.》, 《장군님의 통일방침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너도나도 격정을 터치며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오늘 우리 겨레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에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온 겨레는 격정을 터치고있다. 진정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그이의 원대한 뜻과 드높은 의지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할것이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와 광폭의 도량 그대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영광중의 영광이고 행운중의 최대의 행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태양의 모습을 영원히 심장속에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관설하

겨레의 통일열망에 재를 뿌리는 악행

못된 버러지 장판방에서 모로 긴다는 말이 있다. 남조선당국이 지금 그런 못난 짤을 보이고있다. 우리의 북남관계개선노력에 찬사코 엇드레질을 하면서 남조선의 통일운동판제자들을 부당한 구실을 붙여 탄압하고있는것이다.

최근 남조선보수당국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성원들이 해외에서 우리와 만난데 대해 《불법접촉》이니, 《엄중조치》니 하고 고아대면서 《보안법》의 시퍼런 칼날을 뽑아들었다. 그들이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회의에 참가하여 6.15공동선언발표 16돐과 조국해방 71돐과 관련한 행사들에 대해 론의했다는것이 남조선당국이 들고나온 리유이다. 그야말로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며 대세의 흐름에 도전하는 황당무계한 란동이 아닐수 없다.

지금 온 겨레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울려퍼진 절세위인의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과국의 먹장구름이 드리운 북남관계에 비쳐든 새생의 해빛으로 받아안은 우리 겨레는 신심드높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전민족적관도에서 통일기운이 고조되는 속에 이루어진 북과 남, 해외의 통일운동판제자들의 접촉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것으로서 문제시될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성원들은 통일운동의 선각자들로 찬양받아야 마땅하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불법접촉》에 대해 떠들지만 그것은 그 누구의 《비핵화》와 북남협력을 억지로 련결시키며 북과 남의 통일운동판제자들이 서로 만나는것자체를 범죄시하는 반통일분자들의 흉악한 정체만을 폭로해줄뿐이다.

더우기 6.15와 8.15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뜻깊은 날들로서 이날들을 민족공동으로 기념하는것은 북과 남의 단합과 통일을 타고쳐나가는데 좋으면 좋았지 나쁠것은 하나도 없다. 그를 이러쿵저러쿵하고 걸고들며 탄압광기를 부리는자들부터 죄를 따져야 할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우리와 만난 통일인사들을 탄압하려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날로 높아가는 조국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대결광신자들의 용납 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파쑈폭거이다.

지금껏 남조선당국이 북과 남의 통일운동단체들이 접촉하는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음으로양으로 방해해온것은 널리 폭로된 사실이다. 하지만 북남사이의 사소한 교류나 협력마저 일체 차단한 속에 그 무슨 《불법접촉》이니, 《엄중조치》니 하며 악에 받쳐 날뛰지는 없었다. 남조선당국의 이런 무지막지한 반통일폭압소동이 대세에 밀리우고있는자들의 발악적몸부림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당국의 목적은 이번 탄압소동으로 이렇게 하나 우리를 자극하여 북남관계개선의 판을 완전히 깨자는데 있다.

지금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대화노력과 의지는 내외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반면에 그 무슨 《진정성》이니, 《선 비핵화, 후 대화》니 하는 온당치 못한 태도를 취하며 우리의 대화제의를 외면하는 남조선당국의 처지는 점점 궁색해지고있다.

이로부터 남조선집권세력은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고 대결과 긴장을 계속 격화시키며 나아가서 국제적인 반공화국압살기운을 유지할 흉심밑에 이번에 우리와 만난 통일운동판제자들을 가차없이 탄압할 기도를 드러낸것이다.

남조선의 통일인사들에 대한 보수당국의 탄압소동에는 살벌한 폭압정국의 조성으로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극도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비렬한 술책도 깔려있다.

불순한 정치적목적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의로운 행동에 나선 인사들에게 폭압의 칼을 마구 휘두르는 남조선보수패당이야말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쇠고랑을 차야 할 력사의 죄인들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의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며 파쑈폭압에 광분하는것이 민심의 분노를 더욱 고조시키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리효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행사

우리 나라 재외대표부들에서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연회와 우리 나라 사진 및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캄보자, 만마, 방글라데슈, 베네수엘라, 브라질, 도이췰란드, 오스트리아, 우간다, 남아프리카, 알제리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16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최후승리를 향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성대히 경축》, 《마식령스키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오늘의 평양》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부성, 정당, 단체, 기관의 대표단들과 인사들이 초대되였으며 우리 나라 대표부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비서국 총조정자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그이에 대한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의 표시이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실것이다.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활력에 넘치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을 영화를 통해 뵈옵고보니 그이이시야말로 가장 배짱있고 담대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라는 생각이 다시금 강렬해진다.

자기 령도자를 가식없이 따르며 일심단결로 굳게 뭉쳐있는 조선인민의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우간다정부 부수상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또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변함없이 틀어쥐며 당의 병진로선을 확고히 전지할것을 세상에 선포하였다.

특히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 그대로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심으로써 세상에 유일무이한 조선의 일심단결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몇자루의 총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한 조선이였지만 오늘은 수소탄 등을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은 반드시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여야대립이 낳은 극도의 정국혼란

남조선에서 20대 《국회》 의원선거가 있은 때로부터 한달이 훨씬 지났지만 정국혼란은 수습되기는 고사하고 더욱 심해지고있다. 지금껏 현 집권자가 들고나온 법안들의 《국회》통과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해온 여야당들이 최근에는 《국회법개정안》문제와 관련하여 또다시 충돌하고있다.

지난 19일 남조선의 19대 《국회》 마지막본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이 통과되였다. 일명 《상시청문회법》으로도 불리우는 《국회법개정안》은 《정부시행령》을 해당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수정, 변경시킬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그런데 남조선집권자는 《국회법개정안》이 자기의 손발을 얽어맨것이라고 정책추진에 커다란 방해로 된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한사코 반대하고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인물이였던 류승민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지 않을수 없었던것도 바로 지난해에 집권자의 비위에 거슬리는 《국회법개정안》을 야당들과 함께 만든것과 관련된다. 그때 현 남조선집권자는 류승민이 야당과 협력하여 《국회》에서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그에게 《배신자》라는 딱지를 붙이였다. 그리고 정국혼란이 초래될수 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서슴없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것은 결국 여야의 피터지는 정쟁으로 이어졌고 류승민문제로 하여 《새누리당》도 헤여나오기 힘든 게파싸움에 말려들게 되였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지금 여야가 또다시 첨예하게 대결하고있는것이다.

야당들은 《국회법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법안을 다시 들고나왔다. 그에 대해 《새누리당》이 극구 반대하였지만 이미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한 조건에서 야당세력을 당해낼수 없었다.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당출신의 《국회》의장이 야당들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게 되였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자 《새누리당》메거리들은 《국회》의장의 처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법안통과과정에 문제가 있다.》느니, 《재론의해야 한다.》느니 하고 아부재기를 쳤다. 지어 《새누리당》은 그 무슨 《위헌》에 대해서까지 운운하며 《국회법개정안》을 제기해보려고 발광하고있다. 얼마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법개정안〉을 반드시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이 당의 다른 한 핵심인물도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집권자의 《거부권행사의지가 확고하다.》고 떠들면서 야당세력을 압박하였다.

하지만 야당세력도 만만치 않은 자세로 접어들고있다.

우선 야당세력들은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집권자의 거부권행사를 강력히 반대해나섰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각기 대변인을 내세워 《국회법개정안》이 《정부》마비사태를 불러온다는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못박았다. 두 야당의 원내대표들도 《국회법개정안》은 집권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거부권행사문위기를 마련해주는것은 《국회》를 망치게 하려는 의도라고 신랄히 비난하였다. 특히 야당세력들은 집권자와 《새누리당》이 계속 야당을 무시하고 독단과 전횡을 부린다면 여소야대정국에서 《협력의 정치》가 있을수 없고 그럴 경우 집권자가 남은 임기를 무난히 넘기기 곤난할것이라고 하면서 어리석은짓을 하지 말라고 련일 경고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집권자의 거부권행사여부에 초점이 집중되고있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국회법개정안》문제를 계기로 집권자의 통치력마비사태가 조성될수 있다고 평하였다.

이런 속에 며칠전 남조선집권권자는 야당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선적인 자기의 악습대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에 따라 남조선당국은 《림시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개정안》이 행정당국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것으로서 《위헌소지》가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법안을 《국회》에 돌려보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이런 처사는 지금 야당세력의 강한 반발을 자아내고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집권자의 거부권행사에 맞서 앞으로 열리게 되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상정해 반드시 통과시킬것을 다짐해나서고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그와 관련한 공동대응을 합의하고 보수집권세력을 압박하고있다.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있는 야당세력이 공조할 경우 《국회법개정안》의 통과는 막을수 없게 된다.

하여 《국회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대립이 날로 더욱 격화되고 남조선집권자의 통치위기도 극도에 달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현실은 민심을 외면하고 짓밟으며 오만과 독선을 일삼고있는 청와대의 악정이 남조선정국혼란의 근본원인이라는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장윤남

북침야망실현을 노린 무력증강책동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군부당국이 미국제대형 공격용직승기인 《AH-64E》아파치직승기 4대를 육군에 새로 배치하였다.

2013년 4월에 이 직승기를 구입하기로 최종결정을 한데 따라 지난해 11월 미국 보잉사로부터 이를 넘겨받았으며 올해초부터 해당한 각종 탄약과 지원장비, 수리부속 등을 남조선에 들여들이고있다 한다.

남조선당국은 막대한 돈을 들부어 다음해초까지 아파치직승기를 모두 36대 도입할것을 획책하고있다.

얼마전에는 방위사업청이 올해에 3조 5 000억원어치에 달하는 무기를 수입하기로 하였다고 공표하였다.

한편 남조선당국은 에비군도 싸이버전에 내몰기 위한 놀음밑에 싸이버예비군이라는것을 내오려 하고있다.

26일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위한 실장급협의회를 벌려놓고 군과 경찰의 싸이버전분야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한자들로 싸이버예비군을 편성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론의하였다.

또한 이들을 훈련시키는 문제, 유사시 곧바로 싸이버전에 투입하기 위한 체계구축방안을 검토하는 문제도 토의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국제무대에서 동네북 신세가 된 미국

오늘의 세계

력사하면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 우쭐렁거리며 이 나라, 저 나라에 대고 삿대질하는 미국이 가는 곳마다에서 배격받고있다.

최근 타이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이 나라 주재 미국대사의 발언이 그 직접적동기로 되였다.

미국대사는 이 나라 외무상과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타이의 인권상황이 이렇소, 저렇소 하고 주제넘은 소리를 하였다. 이것은 즉시 이 나라 정계, 사회계의 강한 분노를 자아냈다.

타이수상은 자국의 인권상황을 걸고든 미국대사의 발언이 타이의 현실을 외곡한것으로서 역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타이가 작은 나라이지만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고 그를 박았다. 외무상은 미국대사의 발언을 의도적인 도발행위로 묘사하면서 미국대사가 타이에 대해 더 잘 아는것이 필요하다고 야유조소하였다.

그런가 하면 이 나라에서는 미국대사를 환영할수 없는 인물로 평가하면서 정부가 그를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울려나오고있다.

반미기운은 이란에서도 고조되고있다.

미련방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자국내에 동결되여있던 이란중앙은행의 자금 20억US$를 돌수한 미국의 강도적처사가 이란인민들의 응당한 반발을 샀다.

미국은 저들의 자금절취행위가 1980년대에 있은 테로사건과 관계되여있다고 횡설수설하고있다.

1983년 레바논의 바이루트에 주둔하고있던 미해병대원들의 숙소에서 자폭테로공격사건이 일어나 미특군과 해군 수백명이 황천객이 되였다. 미국은 이 테로공격을 이란의 군사적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히즈볼라초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란에 그 법적책임을 뒤집어씌웠다. 그리고는 뉴욕은행에 예금되여있던 이란은행의 자금 20억US$를 강도적으로 나꾸어챘다. 미군사망자유가족들에게 배상금으로 준다는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국내에서 피해자들의 불만을 녹잦히는 한편 이란에 《테로지원국》모자를 씌워 반이란정책을 강행하고있는 저들의 범죄적책동을 합리화해보려 하고있다.

이란은 미국이 자국을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비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면서 미련방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이란중앙은행의 자금을 절취한것이나 다름없다고 항의하였다.

이란신문 《페이한》은 미련방최고재판소의 판결로 하여 핵협상타결후 얼마간 존재했던 이란과 미국사이의 긴장완화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평하면서 미국은 남의 재산을 훔쳐 제절스럽게 먹어대는 굶주린 남강도승냥이이며 이런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라고 전하였다. 계속하여 신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란의 국영기업체들은 물론 이란사람들중 그 누구도 앞으로 남강도 미국의 돈주머니에 단 1US$의 자금도 저금하지 않을것이 명백해졌다고 하면서 이번 사건은 두 나라의 정치관계뿐아니라 전반적인 무역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지 이란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수입을 전면중지하는 등 강경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한편 이 나라 국회는 미국의 남강도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로 미국이 지난 수십년간 이란국민들에게 끼친 죄행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2건의 긴급법안을 채택하였다. 한건은 1953년 미국이 민주주의적으로 선거된 당시 이란수상 모함마드 모싸데그를 축출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죄행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소하여 미국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내겠다는것이다. 다른 한건은 미국의 부추김밑에 강요된 이란—이라크전쟁시기 이란인 22만 3 000명이 사망하고 이슬람교혁명후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감행된 테로공격들에 의해 이란인 1만 7 000명이 사망한데 대한 피해보상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겠다는것이다.

이란정부는 사법성과의 협력하에 사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법에 준하여 미국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전면적인 외교공세를 벌리고있다.

결국 미국의 이란자금절취행위는 흑메려다가 흑불이는 격이 되고말았다.

제반 사실은 국제적인 반미기운의 강화와 미국의 고립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강권과 패권주의는 오늘의 세계에서 더는 통하지 않는다.

만일 미국이 이것을 명심하지 않고 계속 강권통동이를 휘둘러댄다면 동네북신세가 되여 고립의 함정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범죄의 온상, 불행의 화근을 들어내야 한다

얼마전 오끼나와현 우루마시에서 미군속이 일본인녀성을 살해하고 시체를 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현지주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피해자또래의 한 녀대학생은 《피해자에게도 나와 같은 꿈이 있었을것이다. 미군기지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을것이다. 앞으로 오끼나와에서 살아가야 하는 한 주민으로서 인권이 계속 짓시달하는것을 용납할수 없다.》고 규탄하였다.

어느 한 녀성은 《살해된 녀성이 느낀 공포와 고통을 우리도 겪을수 있다고 생각하니 할 말을 찾을수 없다. 분노가 끓어오르는것을 억제할수 없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오끼나와현내 16개 녀성단체대표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주일미군의 범죄만행을 강력히 단죄하였다.

그들은 미군기지를 두고있는 상태에서는 안전하게 살아나갈수 없다고 하면서 오끼나와현내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편지를 주일미군사령관과 미국대통령 오바마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는 일본당국자들까지도 주민들의 격렬한 기세에 놀리워 어쩔수없이 미군속의 범죄행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살인범죄에 《공식 항의》하는 립장을 발표한다 어쩐다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바빠맞은 미국은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사죄》놀음을 벌리는 등 온갖 노죽을 다 부리였다.

대통령대변인과 국무성, 국방성대변인이 줄줄이 나서서 《사망한 녀성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시한다.》느니, 《적분을 금할수 없다.》느니, 《소름이 끼치는 사건》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수선을 떨었다. 주일미국대사는 일본외상을 만난 자리에서 《오끼나와현 경찰과 일본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입에 침발린 소리를 늘어놓았다. 이러한 《사죄》놀음이 일본주민들의 불만을 녹잦히기 위한 서푼짜리 잔꾀이라는것은 뻔하다.

주일미군범죄문제는 어제오늘에 와서 제기된것이 아니다.

미군이 일본땅에 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주일미군의 범죄는 끊길 날이 없었다. 특히 주일미군의 70%이상이 집중되여있는 오끼나와현에서는 미제침략군에 의한 성폭행, 강도, 살인, 절도사건이 련일나게 일어나고있다.

오죽했으면 일본사람들이 오끼나와주둔 미군기지를 《범죄의 대본영》이라고 규탄하겠는가.

문제는 미군에 의한 범죄사건이 터질 때마다 미국측이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노라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범죄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날로 늘어나고있는것이다.

그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일본인들을 렬등민족으로 보는 미국의 거만성과 미국에 대한 일본당국자들의 비굴한 태도에 있다.

미국과 일본이 《동등한 동맹관계》요, 《동반자관계》요 뭐요 하지만 실지로는 상전과 하수인의 관계이다.

일본은 미국에 군사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여있다.

주일미군은 일본에서 치외법권을 부여받고있다. 때문에 범죄를 범하여도 일본의 법적구속을 받지 않고있다. 이런 특권을 리용하여 그들은 범죄행위를 마음놓고 마구 감행하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은 어찌지 못하고 뒤에서 푸념질이나 하고있다. 정작 앞에 나서면 속에 품은것은 내뱉지 못하고 미군의 추악한 만행을 단순히 《무규률적인 행동》으로 묘사하면서 재발방지조치를 취해달라는 식으로 구걸질이나 하고있다.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졌다는 일본당국자들의 태도가 이러하니 주일미군은 제 하고싶은것을 망탕 하고있다. 일본인들은 미군의 범죄행위때문에 늘 불안과 공포속에 살며 발편잠을 못 자고있다. 오늘날 일본인민들에게 있어서 주일미군은 악성종양과 같다. 악성종양은 대담하게 짤을 대고 송두리째 들어내야 한다.

미군이 일본에 계속 둥지를 틀고있는 한 일본인민들에게 가해지는 불행과 피해는 더욱 커만 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수진

오바마의 히로시마행각에 항의하는 일본인들

ㄱ-61087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번호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